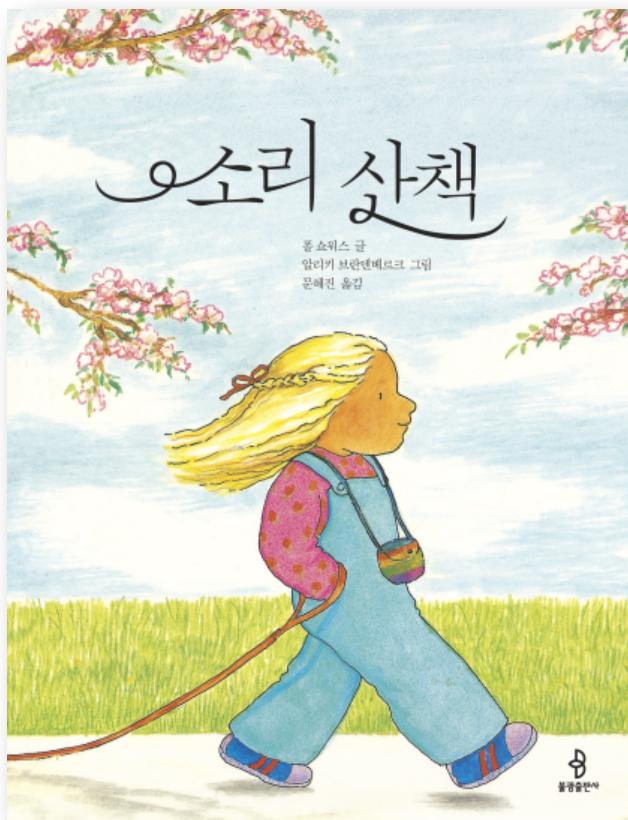


『소리 산책』 독후 활동지



폴 쇼워스 글 | 알리키 브란덴베르크 그림

불광출판사 | 33쪽 | 초등1~2학년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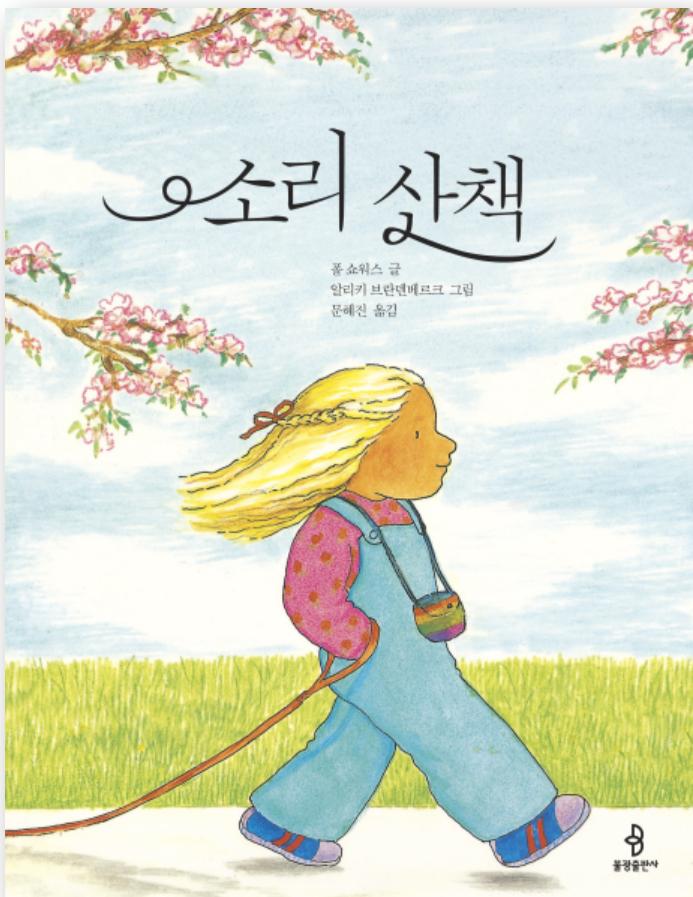
“

아빠랑 강아지랑 함께 동네와 공원을 걸으며 경험하는

다채로운 소리의 축제

”

활동1 표지 살펴보기



1. 아이의 머릿결이 시원하게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 일까요? 아래 상자에 있는 바람의 이름을 참고하여, 아이의 머리카락을 날린 바람의 이름을 찾아봅시다.
(정답은 없습니다.)

바람의 이름

실바람, 산들바람, 남실바람,
간들바람, 소소리바람, 흔들바람,
건들바람, 칼바람, 고추바람,
꽃샘바람, 흙바람

1. 표지에 있는 제목 '소리 산책'의 글씨체가 특별해요. 무엇을 표현한 것 같나요?

2.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난 후 받은 인상과 느낌으로 제목의 글씨체를 새롭게 디자인해 보세요.

활동2

소리를 창작하는 예술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의성어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성어와는 조금 달라요.

자동차가 내는 소리는 '부릉부릉'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소리를 낸다네요?

반짝반짝 새 자동차는 조용해요. 부드럽게 으으으으으으으으

낡은 차는 너무 시끄러워요. 오래된 차 소리는 부~~릉 크릉 부~~릉 크릉

차가 모퉁이를 휙 돌면 바퀴가 휘유우우우우 ~쉭

차가 갑자기 멈추면 브레이크는 끼이이이이이이익

우리도 소리 산책을 하면서, 이처럼 남이 정해 놓은 소리 말고 내가 들은 소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 보세요.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렇게 잘 들은 소리를 말로 표현하여 봅시다.

내가 찾은 소리들

()는

활동3

메이저의 소리 산책

강아지의 청각은 사람보다 40배 이상 뛰어납니다. 책 속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강아지 메이저는, 우리는 들어 본 적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메이저의 소리 산책은 어떤 소리로 가득할까요?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메이저에겐 들려올 아주 작은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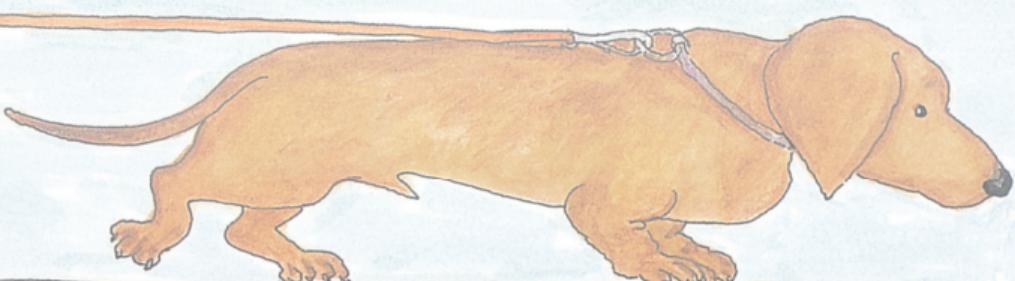
개미가 기어갈 땐 이런 소리가 나지요.

돌멩이가 굴러가요. 그 소리는,

새가 털을 고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 는 이런 소리를 내네요.

() 소리를 들어 보세요.



활동4

이웃 산책

책 속의 아이는 소리 산책을 하면서 여러 이웃을 만납니다.

응애응애 우는 아이와 엄마,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은 언니, 오리 가족과 딱따구리…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어떤 이웃들을 만나나요?

산책을 하면서 만났던, 혹은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을 떠올려 보고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내가 만난 이웃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소개해 봅시다.

(어디에 있나요? 나와 어떤 소통을 하나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무슨 소리를 내나요?)

<예시>

내가 만난 이웃: 비둘기

공원을 지날 때면 비둘기들이 내려앉아
우리에게 다가와요.
먹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둘기들은 날개를 파닥이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먹이를 먹어요.
포르락 푸르르르르 소리를 내요.

내가 만난 이웃:

내가 만난 이웃:

내가 만난 이웃:

활동5

인상파처럼, 색깔 산책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아마 다들 '하늘색'이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하늘은 여러 가지 색이에요.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네요.



모네의 <인상,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 1872,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클로드 모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인상주의'란,
자연이 작가에게 주는 순간적인 인상을 작품에 표현하려는 미술의 한 기법을 말합니다.
빛과 함께 순간순간 움직이는 색의 변화에 특히 주목하지요.
소리처럼, 색깔에도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이번에는 직접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산책 중에 만나는 풍경의 색깔도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답니다.

우리도 인상주의 화가가 되어 순간의 빛을 포착하여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하늘, 바다, 숲, 사람의 얼굴 등 산책길에서 만난 풍경을 골라

여러분이 보고 느낀 그대로의 색채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